

실세 25기의 '변칙 전법' 기대하라

승급한 김호준 내선마크·추입 첫 승
김용규는 마크 추입 전법 변화 적응
유다훈·강성욱도 예상 깨고 추입 강수

요즘 벨로드롬의 실세로 꼽히는 25기 신인들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수하던 선행 일변도의 정직한 전법에서 상대나 상황에 따라 추입과 잏히는 물론 거친 몸싸움의 마크작전까지 구사하는 등 전술의 융통성이 높아졌다.

●김호준, 추입으로 우수 승급 후 첫 승

2주 전 창원 우수급 경주에 출전한 25기 김호준(A2 상남 26세)은 2월 전까지만 해도 선행이나 잏히기 같은 자력승부가 전체 참가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했다. 하지만 4일 경주에서 내선 마크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다음날은 추입을 더해 우수급으로 승급 후 첫 승을 기록했다.

우수급 김용규(A1 김포 28세)도 3주 전 금, 토 경주에서 연거푸 마크 추입을 시도해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전 13번의 경주에서 선행 12번, 잏히기 한 번으로 마크와 추입 전법을 한 적이 없었다.

지난주 금요일 광명에서도 유다훈(A1 전주 27세), 부산에선 강성욱(A2 전주 25세)이 예상을 깨고 추입으로 기존 강자들을 제치며 연거푸 1위를 차지했다. 통상 경주에서 전개의 구심점은 주로



25기 신인들이 선행 일변도에서 다양한 전법의 멀티 플레이어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5일 추입으로 승급 후 첫 승을 기록한 김호준(왼쪽)과 3주 전 연거푸 마크 추입을 시도해 1위를 차지한 김용규.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축으로 대접받는 선수 또는 강한 선행력을 지닌 선수들이다. 하지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선수가 다른 전법을 구사하면 함께 뛰는 선수들은 물론 고객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직한 승부만으로 승급·상급획득 한계

25기 신인들이 이렇듯 작전의 변화와

피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실전 적응기가 끝난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륜훈련원을 졸업한 신인들의 경우 선배들을 상대로 선행을 구사하는 것이 거의 관례였다. 하지만 데뷔 후 2년 차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몰랐던 기존 선수들의 작전도 어느 정도 파악해 굳이 앞만 보고 달릴 필요가 없다.

또한 데뷔 후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선

발급은 우수급으로, 우수급은 특선급으로 승급을 보장받게 된다. 이렇게 위 등급으로 올라가면 상대할 선수들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정직한 승부만 고수해서는 결과를 내기가 이전처럼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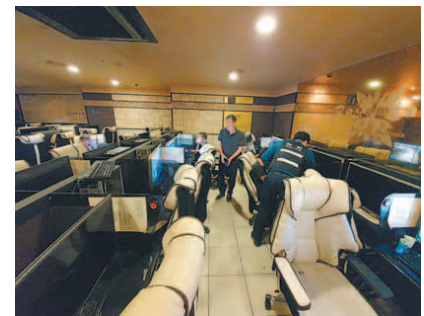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도 변화의 한 원인이다. 코로나19로 휴장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서 선수들마다 소득공백이 생겼다. 25기는 실전 경주를 몇 번 뛰어보지 못하고 휴장을 맞았다. 기존 선수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많은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선 승위를 앞당겨야 하고 상위 등급에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 새로운 전법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감한 작전의 변화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선수들도 초반 한두 번은 당하지만 곧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2주 전 김민수(A2 금정 26세) 이재림(A1 계양 26세)처럼 전날은 잏히는 작전을 구사하다 실패하자 일요 경주에서는 선행으로 복귀한 경우가 있다. 물론 임재빈(S1 수성 30세)처럼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선행만 고수하는 선수들도 몇몇 있다.

최강경륜의 박장현 발행인은 "신인급의 전법 변화는 지금 시점이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상대 선수들은 물론 경륜 팬도 신인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꼭 하고, 고정된 추리에서 벗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륜·경정,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단속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조성 총괄본부는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사진)을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불법 사설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13일까지 불법 사설 경주 운영자 총 35명을 검거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 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경찰청의 수사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륜·경정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륜경정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 경륜·경정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경륜 26기 신인들, 시범경주로 팬들에게 첫 선



경륜 26기 신인들이 10일과 11일 광명스피돔에서 시범경주(사진)로 팬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이들 동안 각각 3경주씩 개최

때 총 6경주가 열렸다. 첫 날 열린 1라운드에서 정현수는 선두유도원 퇴피 후 윤승규의 뒤를 밀착마크하며 강력한 스피드의 잏히기로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했다.

둘째 날 경주는 첫날 시범경주에서 입상한 선수들로 편성됐다. 정현수는 최종 주회 2코너 부근에서 잏히기로 승부를 걸었으나 마지막 직선주에서 이태운에게 추입을 허용하며 2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26기 신인들은 올 시즌 하반기에 데뷔할 예정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부분 재개장 경정 '춘추전국시대'...플라잉 스타트에 이번 속출

18·19회차 강추 없는 혼전 양상
사전 출발 위반요소도 승부 변수

잠시 멈췄던 경정이 2일 제18회차부터 다시 경주가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7개 지점은 정원의 20%까지 고객 입장이 가능하다. 경주가 열리는 미사 경정장에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람객은 없지만 레이싱의 열기만큼은 초여름 날씨 못지않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매 경주 강자 독주 아닌 혼전 양상

재개된 경정 경주의 특징은 혼전 양상의 급증이다. 올 시즌 많지 않은 경주횟수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이 많이 발생했다. 재개장 이후 열린 18회차와 19회차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다. 예년과 다르게 믿음직한 강자가 없어 누구도 입상이 가능해 춘추전국시대 연상시킨다.

18회차에서의 쌍승식 평균 배당은 12.9배였고 19회차 쌍승식 평균 배당은 15.5배를 기록했다. 온라인 스타트는 나름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보였지만 플라잉 스타트 방식에서 상당히 많은 이번이 속출했다.

올 시즌 이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선 선수들의 적극적인 승부욕을 꼽을 수 있겠다. 잏은 휴장과 축소된 경주로 인해 출전 횟수가 적다 보니 선수들이 상금을 두고 출전 경기마다 적극적인 승부를 펼치고 있다.

●과감한 스타트...사전 출발 위반 조심해야

하지만 무리한 승부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9일 수요일 4경주에서 손근성과

이휘동이 아웃코스에서 과감한 스타트 승부를 펼치다 두 선수 모두 사전출발(F)을 하게 됐다. 특히 손근성은 당시 시즌 3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이어서 사전출발 위반은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황영인 경정 원저 예상위원은 "출전 횟수가 보장되기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상급 수급을 위한 선수들의 적극적인 승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플라잉 스타트 방식에서는 충분히 이번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길수록 1턴 마크 경합 상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모더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아웃코스 선수에게도 충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용유형 : 과채유로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양배추:국산), 사과(충청남도(사과:국산), 브로콜리(충청남도(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 매실(충청남도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이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